



“시를 쓰지 않는 나날에도 난 늘 시인”

등단 30년 만에 첫 시집 ‘정어리의 신탁’ 펴낸 최승권 시인

“그동안 시에 대한 갈증이 적지 않았다. 시집 발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틈틈이 습작을 했었다. 시를 쓰지 않는 동안에도 늘 시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광주 출신 최승권 시인(56). 그가 등단한 지 30년 만에 첫 시집 ‘정어리의 신탁(神託)’(문학들)을 펴내 지역 문단 안팎에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아마도 그는 쉽게 시가 쓰여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198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겨울 수화’를 통해 등단했지만 이제껏 단 한권의 시집도 내지 않은 걸 보면 말이다.

30년 만에 첫 시집을 펴낸 최 시인을 보면서, 기자는 운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가 떠올랐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일뿐, 사실 운동주는 무수히 많은 불면의 밤과 좌절을 안내했을 것이다.

그렇다. 시는 것처럼 접근하기 쉬운 문학 장르가 아니다. 다양한 의미와 이미지를 하나의 시어에 함축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습작과 사유가 필요하다. 쉽게 쓸 수 없는 시를 쉽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력을 지불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최승권 시인의 경우도 쉽게 시를 쓸 수 없었던 남모름이 있었다. 시를 쓰지 않았던 상황이 적잖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게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5세대’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동인지도 출간했다. 그러다 89년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서 해직을 당했다. 생계가 막막했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학원을 하는 친구의 권유로 상경을 했다.”

최 시인이 시를 쓸 수 없었던 이유다. 그렇게 10년을 서울의 입시 학원에서 시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복직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물질문명에 메스 가하고고파”

떨어진 삶을 살았다. “시에 대한 생각은 많았지만 밥벌이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다”는 시인은 “굉장히 빡빡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내 자신이 게을렀지 않나 싶다”고 ‘반성’을 한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컸다. 시인이 자기 시집이 없을 때는 시인이라고 뽐뽐이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86년 신춘문예에 당선된 ‘겨울 수화’는 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었기에 오랜 ‘공백’은 적잖은 아쉬움을 주었다.

“해우 한 장보다도 맑은 졸업장을 주면 서/ 바닷가 갯물냄새 투성이의 아이들과/ 마지막 뜨거운 약속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 나는 빈 침판에 갈매기 두 마리를 그리고 / 유리창 밑에 숨어 바다를 보며 울었다.”

이처럼 빼어난 서정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의 시는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에 기댄다면, 30년은 산천이 3번이나 뒤바뀌는 적잖은 시간일 터였다.

“98년 서울 생활을 접고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복직이 돼 교사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다보니(현재 전남여고에 재직 중)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이번에 펴낸 시집에는 서정의 세계를 지지하는 기존의 축과 문명 비판이라는 또 다른 축이 자리한다. 특히 표제시 ‘정어리의 신탁(神託)’은 자본주의 문명이 낳은 비합리적인 현실을 비유적으로 꼬집은 작품



이다. “TV 앞 이케르 氏의 점술 노동은 / 전기자극장치 아바위의 속임수 없이 아주 단순명쾌하다./ 경기에 참가할 두 팀의 이름을 적은 항아리

속에/ 정어리 몇 조각을 넣어 두면/ 배고픈 이케르氏가 그중 하나를 골라 먹는 것이다.”

“이케르”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였던 이케르 카시야스의 이름을 딴 대형 문어를 지칭한다. 국제적인 경기가 있을 때는 수족관의 이케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조미의 관심을 끈다. 방향에 따라 특정 팀이 승리한다는 예견(신탁) 때문이다, 사실 문어는 양쪽에 놓인 정어리나 홍합 가운데 하나를 먹을 뿐이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은 문어를 예지력을 갖춘 생물로 신격화했다”고 비판하는 시인은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에 대한 메스를 가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해설을 쓴 박대현 문학평론가는 “서정이 더 이상 불가능한 자본주의의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서 해체적 언어를 도입한 것으로 진단하면서 “서정과 해체를 왕복하는 진자운동을 보여준다”고 평한다.

30년 만에 첫시집을 불쑥 상재한 최승권 시인. 대부분 등단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작품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단 풍토에서 그의 행보는 사뭇 이색적이다.

“젊은 시절 송수권 시인으로부터 시를 배울 때, 선생은 시는 궁극적으로 서정성과 인간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토대 위에 삶의 근원을 회복하기 위한 시적 전위를 펼치고 싶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제주4·3사건 추모 만화 ‘지슬’ 원화 전시회

4월 20일까지 5·18문화센터 화제의 영화 ‘지슬’ 원작 ‘김금숙 작가와의 만남’도

제주4·3사건 68주기를 맞아 5·18기념재단이 만화 ‘지슬’ 원화 전시회를 4월 2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1948년 제주 4·3사건 소재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감독 오필름)을 원작으로 만든 만화 ‘지슬’ 수록화 46점을 선보인다. 영화와 만화 속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는 ‘지슬’은 ‘김자’의 제주방언이다.

영화 ‘지슬’은 미국의 소개령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 동굴 속으로 피신하는 마을 주민들과 그들을 쫓는 토벌군의 혹독한 겨울을 담았다. 한국영화 최초 미국 선댄스영화제 최고상 수상, 프랑스 브뤼셀국제아시아영화제 황금수레바퀴상, 이스탄불영화제 특별인급상, 부산국제영화제 4개 부문 수상을 했고 국내 독립영화 최대 관객을 동원했다.

김금숙 작가가 그린 만화는 영화 내용을 한쪽의 수록화처럼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 대사를 간결하게 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4월20일까지 전시되는 만화 ‘지슬’ 원화.

용하며 비중을 줄였음에도 만화만으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부드러운 그림체로 그린 제주 풍경은 비극적 사건 이면에 숨은 사람이야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만화는 프랑스에서 100권 이상 프랑스어로 번역돼 출간되며 4·3사건을 세계에 알렸다.

김 작가는 지난 2014년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위안부 진실을 알리는 ‘지지 않는 꽃’ 전시에서 단편 ‘비밀’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4월4일 오후 3시 오픈식에서는 김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집회에서 경찰이 시위 군중을 향해 총을 발포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1948년 4월3일 발생한 봉기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문의 062-360-051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술강의 듣고 예술영화도 보고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인문학 강좌

30일 첫 강좌 8월까지 마지막 수요일

광주시립미술관이 2016 상록인문학 강좌를 시작한다. 올해 강좌 주제는 ‘아시아 현대미술의 화두와 출구’다. 8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3시마다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며 매회 예술영화도 상영한다.

30일 열리는 첫번째 강의 강사는 최병식(사진) 경희대학교 교수다. 최 교수는 4월까지 ‘아시아 미술 세계에 던지는 화두’를 주제로 20세기 이후 아시아 미술에 대해 강연한다.

20세기 전반 한·중·일 미술분야 전통과 당시 모더니즘 현대미술 수용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



교수는 ‘미술시장과 경영’, ‘동양회화미학’, ‘미술의 구조와 신비’ 등 30여권 저서와 편서를 발표했다.

5월에는 ‘글로벌 미술시장, 홍콩 아트마켓 리포트’(박혜경), 6월 ‘중국 대중 문화와 차이나 팝’(배현진), 7월 ‘동아시아 미술의 탄생’(김영순), 8월 ‘한·일 현대 미술가 마주보기-포스트모던의 단

종에서’(김영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예술영화 상영이 진행된다. ‘미드나잇 인 파리’(30일), ‘물랑루즈’(4월), ‘마네의 제비꽃여인’(5월), ‘르누아르’(6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7월), ‘바스키아’(8월)를 함께 관람한다.

문의 062-613-713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천경자 화백 유족들 ‘미인도’ 위작 4월에 소송

거물급 무료 변호인단 구성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지난 연말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던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거물급 변호사들이 포함된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유족 측은 4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

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에는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를 대리해 온 배금자 변호사 외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위월환(동수원종합법무법인 대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가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발족 취지문에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작

가의 사후 명예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위작 미인도와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의 행위는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가하는 인권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우환 화백 위작 논란에 대해선 작가가 ‘진작과 위작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천 화백과 관련해서 작가 존중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패널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패널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등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패널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스틸단열방수 전문기업 **내연합건설** 1599-7652 지역 대리점 모집

광주·전남지사 NAVER [내연합건설] 검색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파죽지성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 예약문의 (062)525-2111